

사회조사방법론

기존 문헌의 탐색

김현우, PhD¹

¹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

March 21, 2025



진행 순서

- 1 연구 주제 선정과 기존 문헌의 관계
- 2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
- 3 선행연구 고찰

연구 주제 선정과 기존 문헌의 관계

연구 주제 선정과 기존 문헌의 관계

일단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면 뒤이어 선행 연구를 검토해야 한다.

- 가령 양심적 병역거부(conscientious objection)라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고 하자.
- 이제 이 단어를 키워드로 하여 기존 문헌(previous literature)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.
- 만일 기존 연구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이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.
- 기존 연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다보면 완전히 형편없는 연구를 수행하기 쉽고, 매우 운이 좋으면 바퀴를 재발명(reinventing the wheel)한다(Why?).
- 남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연구가 기존 문헌에 근거하지 않고 갑자기 생겨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(드라마나 만화를 현실과 혼동해선 안된다).



연구 주제 선정과 기존 문헌의 관계

- “왜 이 연구 주제를 선택했나요?”라는 질문에 대해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.
-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리허설해야 한다(Why?).
- (1) 기존 문헌에서는 살펴보지 않은 주제임을 지적하고 이를 연구하거나, (2) 기존 문헌에서 연구는 되었으나 이론적·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메꾸거나, (3) 기존 연구가 너무 옛날에 수행되었으므로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 수행하거나 하는 등 내 연구 주제 선정의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.
- 자신의 연구는 결국 기존 문헌과의 대화인 셈이다. 옛 선배들이 던진 질문과 답에 대한 나의 새로운 질문과 답이다!
- Isaac Newton의 유명한 인용구를 떠올리자: “만약 내가 멀리 보았다면,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덕택이다(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).”



연구 주제 선정과 기존 문헌의 관계

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기존 문헌에서 온다.

- 기존 문헌으로부터 그 구조와 양식을 최대한 흉내내자. 모방은 학습의 어머니이다.
- 기존 문헌을 통해 연구 주제, **연구 설계(research design)**, 연구 모형, 연구 가설, 자료, 사용할 변수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.
- 모범으로 삼고 싶은 기존 문헌 한두 편을 골라두자!
-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이 연구들을 돌아보자. 이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?



연구 주제 선정과 기존 문헌의 관계

그러나 표절만큼은 안된다.

- 표절은 아주 쉽게 피할 수 있는데 왜 이토록 만연할까?
-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게으름이야말로 표절의 원인이 된다. 책과 논문을 읽고 덮은 뒤 이해한 바대로 쓰는 것이다. 만일 쓸 수 없었다면 다시 읽으면 된다.
- 나쁜 습관과 무신경함도 표절의 한 원인이 된다. 기존 문헌의 좋은 문장을 복사해두고 (복사했다는 사실을 잊고)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.
- 표절은 카피 킬러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아주 쉽게 잡힌다. ChatGPT를 사용해서 만든 문장조차도 종종 잡힌다.



연구 주제 선정과 기존 문헌의 관계

사실 책과 논문을 읽는 과정과 목적은 크게 둘로 나뉜다.

- 첫번째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관심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탐색적 읽기이다.
- 좋은 주제 찾기를 위한 여섯 가지 팁을 보면, 결국 기존 연구에서 연구 주제를 (재) 발견함을 알 수 있다!
- 사회불평등과 빈곤 문제, 그리고 지역연구에 관한 책과 논문을 읽다보면, (예전에는 모르고 있던)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.
- 가령 “주민등록말소자라는 소외된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어떤 계기로 주민등록 말소에 이르게 되었는가?”와 같은 연구 주제를 찾을 수도 있다.



연구 주제 선정과 기존 문헌의 관계

- 두번째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읽기이다.
- 이 경우에는 이미 연구 주제가 확고히 주어진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.
- 이러한 읽기를 통해 기존 이론들의 입장과 대립, 경험적 증거, 기존 방법론의 장점과 한계 등을 정리한다.
- 이러한 정리 과정은 특별히 **기존 문헌 검토(literature review)**라고 부른다.
- 이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자신의 연구 보고서나 논문이 어떤 방향으로 구성할지 결정해야 한다.



연구 주제 선정과 기존 문헌의 관계

실제로는 선행 연구 검토가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.

- 언제나 연구 주제가 '사전에' 미리 정해지고 늘 이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연구 보고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.
-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 주제도 가다듬어지는 경우도 흔하다.
- 이런 경우 서론과 기존문헌 정리 파트를 새로 써야하는 부담이 생겨날 수도 있다 (Why?).
- 사회학 연구가 아주 익숙해지기 전까지 이런 과정은 어쩔 수 없다. 모두 감내해야 하는 과정일 뿐이다.
- 더 나중에 여러분의 연구 보고서는 언젠가 누군가의 기존 문헌이 될 것이다:
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



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

기존문헌은 어떻게 찾는 것일까?

- 우리나라에서 학술연구 논문은 제도적으로 위계화된 **학술지(journal)**에 출판된다.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주기적으로 학술지 목록을 등재하여 발표한다.
- 이렇게 등재된 학술지를 **학진 등재지**라고 부르고 **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**이라고 부르기도 한다.
- 여러분이 읽어야 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KCI 학술지에 실린 것이어야 한다.
- 국외에서는 SSCI와 SCOPUS라는 인용색인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. 다만 이런 학술지에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영어이므로 한국 학생 입장에서는 읽기에 부담이 있다.
- 사실 이공계에서는 학부생이라도 국제학술논문 정도는 읽고 참조할 줄 안다.



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

- KCI 학술지 논문은 우리 학교 도서관([링크])에서 무료로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
- 다음의 저널 데이터베이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:
 - (1) DBpia ([링크])
 - (2) KISS ([링크])
 - (3) 교보문고 스콜라 ([링크])
 - (4) 한국학술지인용색인([링크])
- 학교 밖에서는 IP가 달라지므로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더이상 무료로 접근할 수 없다.
이 경우에는 교외접속을 해야 한다.



도서관은 그 밖에도 수많은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.

- 논문, 책, 신문, 판례, 기업자료, 데이터 등을 찾는 다양한 노하우를 스스로 학습해야 한다.
- 사서를 적극 찾아가 자신의 연구 주제 및 방법에 관해 상의하자(원래 그러라고 학교가 고용한 것이다). 이들과 채팅이나 전화도 할 수 있다.
- 책이 없다면 구매 신청도 가능하고 **도서관간 대출(interlibrary loan)**도 가능하다.
- 사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것!



선행연구 고찰

이희정(2018)의 논문에서 기존 문헌 검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.

- “II. 이론적 논의”는 본론의 첫머리로 “1. 사회계층인식 연구”와 “2. 공정성 인식 연구”로 나뉘어 있다.
- 각각의 섹션 안에 수많은 기존 문헌을 요약 정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소스도 인용(citation)하고 있다.
- 일관된 하나의 연구 주제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포괄적으로 미리 살펴보았음이 드러난다.
- 결국 기존 문헌 검토는 모든 문헌들을 한 곳에 모은 다음, 하나하나 그것들을 읽어보고 각각의 주요 주장과 장단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.

이희정. 2018. “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.” 『한국사회학』 52(3): 119-164.



- 이러한 기존 문헌 검토의 끝에 자신의 가설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.
- 결국 이 가설들은 아무 생각없이 마구 내던진 것이 아니라, 기존 문헌을 철저히 검토한 끝에 제시된 것이다.
- 이 연구에서는 그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사회과학적 지식의 진보에 기여한다.
- 더 큰 관점에서 이 논문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.
 - I. 머리말
 - II. 이론적 논의
 - III.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
 - IV. 분석결과
 - V. 맺음말



선행연구 고찰

- 기존 문헌은 “II. 이론적 논의” 파트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보고되고 있지만, ‘I. 머리말’에서나 ‘V. 맺음말’에서도 나온다.
- 논문의 서론적인 ‘I. 머리말’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사실 이 연구가 기존 이론 체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가에 관한 것이다.
- 논문의 결론적인 ‘V. 맺음말’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기존 문헌에 어떤 **부가가치(value added)**를 창출했는가를 보여준다.
-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론의 전반부인 “II. 이론적 논의”에서 기존 문헌 검토가 가장 꼼꼼히 수행되어야 한다.
- “III.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”과 “IV. 분석결과”에서는 가급적 기존 문헌을 언급하지 말고 자신의 연구 자체에 주목한다.

